

기도 9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마태복음 6: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 첫째, 왜 우리는 사죄의 기도가 필요한가? 둘째, 왜 우리는 우리에게 죄진 자에게 용서가 필요한가? 두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왜 우리는 사죄의 기도가 필요한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판결은 영원히 유효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다시 의롭다함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죄사함의 청원은 의롭다 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양자로서 살아 가는데 필요한 기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단번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은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구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법정에 세울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 가는데 있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충만을 받고 살기 위하여 죄사함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슬프시게 하기 때문에 죄를 함부로 범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기 위하여 죄를 범하면 안 된다.

한 자매가 친구들끼리 한참 재미있게 놀다가 갑자기 밤 늦게 집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자리를 뜨고자 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아직도 너는 네 부모를 그렇게 무서워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자매는 부모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하여 밤에 일찍 들어간다고 말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와 같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하여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죄를 범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바른 생활을 할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을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받았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면 회개 하고 사죄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의 기도가 필수적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살면서도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죄의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고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판단 기준을 삼아야 한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항상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우리의 죄를 깨닫는데 있어서 신앙의 선배들이나 가까운 친구 혹은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좋은 인간 관계를 위하여 항상 좋은 말만 해 주는데 사랑을 가지고 잘 못을 지적해 주고 그 잘못을 사랑으로 받아 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좋은 믿음의 공동체라면 말씀에서 벗어난 믿음의 가족에게 따끔한 충고가 필요하고 그것을 상처로 받아 들이지 않고 사랑의 충고로 받아 들일 수 있어야 한다.

잠언 27:6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다윗이 범죄 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충고는 다윗에게 큰 회개를 가져 오게 했다. 죄를 짓고도 얼렁 뚱땅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죄를 지으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 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리스도인은 죄를 전혀 안지은 자가 아니라 죄를 지을 때 죄를 시인하고 빨리 회개하는 자이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가를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는 시편 32편과 51편의 다윗의 회개시를 자주 읽어야 할 것이다. 다윗은 사죄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살았다.

로마서 4:7-8

7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2. 왜 우리는 우리에게 죄진 자에게 용서가 필요한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이해 하기 어려운 구절이다. 얼핏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한 것 같다. 나도 형제의 죄를 용서 해 주었으니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기를 강요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렇지 않다. 김세운 교수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자를 용서하겠나이다.”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우리에게 죄 진자를 용서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의 용서를 받고 살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작은 잘못을 하는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 우리는 마태복음 18:21-35절에 나온 일만 탈란트 빚진자의 비유를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 일만 탈란트의 빚을 탕감 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다니!!! 그러나 사실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비유이다. 우리 모두는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용서 받고 싶지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용서는 매우 인색하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 무한한 죄사함을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아주 적은 죄를 범한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못

한 우리를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사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에 비해서 아주 적은 죄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염치 없는 짓을 우리가 매일 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의 초점은 우리에게 형제의 죄를 용서 하는데 있다. 내 죄만 사함 받겠다는 기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것은 잘못 된 기도이다. 많은 사람이 자기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는 편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해 달라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진짜 이유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내에서는 용서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 기도이다.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 해주어야 하는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일흔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다. 이것은 용서의 숫자를 의미한 것이 아니고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자신이 괴로운지 모른다. 그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게 된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생각에 머물러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여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내에 이와 같은 미움 갈등은 정말 정말 해로운 것이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변화 되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나 한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 그것은 누룩처럼 번져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로 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수 없이 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서도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을 매우 슬프시게 하는 것이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나가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만을 얻고자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에 대해서 상관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보다 우선으로 여긴다면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한채 기도한다든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마태복음 5:23-24

23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용서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마가복음 11:25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기도가 성공적인 기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구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우리는 이 죄 사함의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앞에서 살펴본 세가지 기도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될 수 있지만 실제제적으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6가지 기도는 사실 경중을 가릴 수 없도록 각자가 매우 중요한 기도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 기도대로 기도를 배울 때 우리의 기도생활은 매일 매일 풍성한 은혜가 될 것이다.